

트럼프 당선 ... 현대·기아차에 기회 될까

미국, 전기차 등 미래차 육성정책 제동 걸릴텐

후발주자인 한국 자동차업계 준비할 시간 생겨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그동안 빠르게 발전해 온 친환경차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후발주자인 현대·기아차에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4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그동안 자동차 업계 등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다. 그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사기'라고 언급했을 뿐 아니라 "환경 마피아에게 돈 퍼주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다.

반면 그는 "미국에 2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석유가 매장돼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사용해야 된다"고 의견을 밝혀 내연기관차에는 연비 규제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49만9000대로, 전세계 판매량의 21.4%를 점유했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친환경차 시장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기차 등 탄소무배출차량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에 오바마 정부 시절 2018년부터 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전기차 의무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아 빠른 속도의 성장이 점쳐졌었다.

현대차는 지난 2011년 4월 미국 시장에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처음 선보인 이후 5

년간 10만대 이상을 판매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기아차 역시 전기차 쏘울 EV를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 현대·기아차는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 사이에 친환경 전용모델인 아이오닉과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앞세워 미국 친

환경차 시장에 대한 공세를 높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으로 전기차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이 줄어들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변화협약·지구온난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것으로 표명했다"면서 "이는 보조금 지급과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지원받던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률도 둔화시킬 수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친환경차 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친환경차 후발주자인 국내 자동차업계에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육성정책을 포기할 경우 현대·기아차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생기면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그동안 빠르게 발전해 온 친환경차의 성장 속도가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후발주자인 현대·기아차에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수출 차량 선적 부두. <현대자동차 제공>

日 자율주행버스 첫 시험 운행

‘로봇서플’ 아키타현서 400m

일본 일반도로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버스 주행시험이 이뤄졌다.

14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아키타(秋田)현 센보쿠(仙北)시에서 운전자는 물론 핸들(스티어링 휠)도 없는 ‘로봇서플’ 자율주행버스가 현지 주민 등을 태우고 시속 10km의 속도로 전면통행금지된 다자외호반 현도로 약 400m를 왕복주행했다.

센보쿠시는 규제 완화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지방창생(創生)특구’의 하나로,

다른 지방 읍·면·동 지역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돼 노선버스 유지가 어려워진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실험을 통해 자율주행버스가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실험은 일본 내각부와 센보쿠시가 정보기술(IT) 기업 디엔에이(DeNA)에 위탁해 실시했다. 일본 정부는 실험결과 등을 기초로 향후 안전성 검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로봇서플은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센서, 카메라 등을 활용해 장애물을 피해

가면서 자동으로 주행하는 원리로 운행된다. 최대 12명이 탈 수 있지만, 이날 실험에서는 1회당 6명이 탔다.

차량은 프랑스 벤처기업인 이지마일이 개발한 길이 4m, 폭 2m의 12인승 무인 전기버스가 투입됐다. 시찰에 나선 야마모토 고조 지역창생담당상(지역경제 재생 담당 장관 역)도 시승했다.

이 자율주행버스는 110V~230V로 충전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용해 10시간까지 주행할 수 있다.

실험주행에 참가한 센보쿠시 주민 후지무라 세이코(77)씨는 “흔들림도 거의 없이 조용했다. 이 정도면 친구와 얘기하면서도 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휴일이라 실험주행에 참가했다는 센보쿠시의 8세 아동은 “아빠가 운전하는 차



지난 13일 일본 동북지방 아키타현 일반 도로에서 실증실험을 하는 무인 자율주행버스.

보다 천천히 달려 승차감이 좋았다”며 밝게 웃었다.

/연합뉴스



기아차 ‘올 뉴 K7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연비 16.2km/ℓ 등급 최고

공기저항 최소화 기능 장착

기아자동차는 등급 최고 연비에 정숙한 승차감을 자랑하는 준대형 세단 ‘올 뉴 K7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 지난 10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갔다. 올 뉴 K7 하이브리드는 올해 1월 출시돼 준대형 시장 판매 1위에 오른 올 뉴 K7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올 뉴 K7 하이브리드의 복합연비는 16.2km/ℓ로 이전보다 8.8% 향상됐다. 기아차는 연비 향상을 위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액티브 에어플랩’을 신규 적용했으며, 하이브리드 전용 휠을 장착했다.

올 뉴 K7 하이브리드는 고전압 배터리 용량을 23% 향상시키고 ‘능동부밍제어’ 기술을 새롭게 적용해 모터로만 주행하는 EV모드를 극대화했다. 엔진구동 시 소음·진동을 개선해 정숙하고 편안한 주행 감성을 강화했다.

디자인은 음악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 알파벳 Z 형상으로 빛나는 헤드램프 등 시장 반응이 좋았던 올 뉴 K7의 장점은 살리면서, 풀 LED 헤드램프, 크롬 아웃사이드미러, 하이브리드 엠블럼 등을 새로 적용했다.

기존 모델보다 차체 크기가 커져 실내 공간이 넓어졌다. 기존에 2열 시트 후면

에 있던 고전압 배터리를 트렁크 하단부로 옮겨 골프백 4개까지 실을 정도로 트렁크 용량을 늘렸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트렁크, 무릎에어백을 포함한 9에어백 등 각종 안전·편의 사양도 신규 적용됐다. 기아차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용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평생보증을 실시한다.

기존에 진행했던 하이브리드 중고차 잔가보장(최대 3년, 62%), 차량구매 후 불만족 시 차종 교환(최초등록 후 30일 이내), 하이브리드 전용부품 10년 20만 km 보증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한다.

사전계약 기간 차량을 계약하면 구매 지원금 20만원 또는 출고 시용품인 문블랑 지갑, 하만카돈 블루투스 스피커 중 한 가지를 제공한다.

판매 가격(개별소비세 감면 후 기준)은 프레스티지 트림 3570만~3600만원, 노블레스 트림 3875만~3905만원이며, 내비게이션을 미적용한 마이너스 옵션도 운영된다.

기아차는 “개선된 상품성에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며 “기존 K7 하이브리드 판매의 96%를 차지했던 프레스티지 트림은 안전·편의사양 강화에도 가격은 기존과 비슷하게 책정해 가격 인

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현대차 대학생 ‘H-마케팅 마스터 클래스’ 3기 수료식

현대자동차는 지난 12일 대학생 대상 자동차 산업 마케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인 ‘H-마케팅 마스터 클래스’ 3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활동 기간에 배운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한 ‘현대자동차 미래 마케팅 전략’에 대한 팀별 과제 발표, 우수 팀과 우수자 시상

등이 진행됐다.

2014년 말 시작된 올해로 3회째를 맞은 ‘H-마케팅 마스터 클래스’는 대학생들의 자동차 산업 마케팅 실무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수료한 3기 참가자 60명을 포함, 현재까지 총 240명의 대학생이 참가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 대 화 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우 청 미 술 관 동구 금남로2가 31번지 한국 채식화(만화) 연구소 대표 김생수 ☎062)383-8408		맘스터치 빛가람1호점 전남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중학교앞 단체주문 및 예약환영 “전화를 주문하시고 15분후에 매장을 방문하시면 바로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061)333-2256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영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정문사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감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행 복 공 인 중 개 사 동구 중앙로 218번지 고객만족, 책임중개 대표 강인철 ☎062)225-3303		한마음정육식당 북구 용봉동 159-9 (북구청 전대후문) 정육식당형 돼지고기전문점 돼지1마리(1kg) 37,000원, 돼지반마리(500g) 19,000원, 국내산생삼겹(250g) 12,000원 대표 김진표 ☎062)261-8292		대 풍 쌀 농 산 북구 서방로 39번길 9-2 (중흥평화맨션입구) 일반미, 찰쌀, 보리쌀, 현미, 서리태, 팥, 들깨, 녹두, 참깨 등 잡곡 도.소매 대표 박경열 ☎062)267-0101, 010-3609-7117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양 지 공 인 중 개 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말바우2층 신발백화점 북구 동문대로 97번길8 2층 말바우시장내 통일로약국 골목 대표 임동일 ☎062)266-9737, 010-9432-38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달 수 기 사 님 식 당 북구 우산동 206-7번지 (무등도서관 우산공원옆) 백반전문 기사님 식당(가격 5,000원) 대표 유광중 ☎062)268-9255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062)224-4869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 산 철 학 원 북구 두암동 예단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K1 밧데리 북구 두암동 미라보입구 사거리 (각화 주공아파트 중간지점) 차량용, 산업용 축전지 도소매 전문 무료 출장서비스 ☎062)267-3935, 010-8893-3935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정입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로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			